이라크에서 돌아오다

군인들은 보호를 위해 사방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한다. 모래주머니는 지뢰를 건드리거나 거리에서 기습공격을 당하면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조차도 폭탄설치에 사용된 것일지도 모르므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손을 쭉 뻗고 음식을 구걸하는 아이들과 AK-47의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야 했다. 그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지속적인 무기배치를 하여 필요하면 공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들은 단 한번 연료보급을 위해 멈추고는 이틀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멈춘다는 것은 정말 위험했다. 폭도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였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의 티크리트라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그런 경험이다. 그러나 미 육군하사관 마크 톰슨은 그것을 위해 개인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했다.

이 군인의 이야기

28살인 톰슨은 아이오아주 태생이다. 그는 결혼한지 9년이 됐으며 카일이라는 2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다. 그는 역마살이 있었고 세상을 다 보고 싶어했다. 결국 그런 열망과 대학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나이가 많던 룸메이트에게 들은 얘기는 톰슨을 입대하게 만들었다. 톰슨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군대라는 모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던 중, 학자금이 필요했던 톰슨은 1996년 4년간 계약을 했고, 그 기간 후에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톰슨은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군대에서 그 스스로를 발견했고 직업군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 톰슨은 갑작스런 체중감량을 경험했다. 그는 언제나 피곤해했으며 목말라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조깅을 하던 중간에 쓰러졌다. 톰슨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당은 600mg/dL을 넘어섰다. 의사는 그가 제 1형 당뇨병환자임을 진단했다.

그는 진단 당시의 A1C 12.5%였으나 군대에서 다시 그의 상태를 확인한 2002년까지 6.2%로 낮췄다. 그가 당뇨병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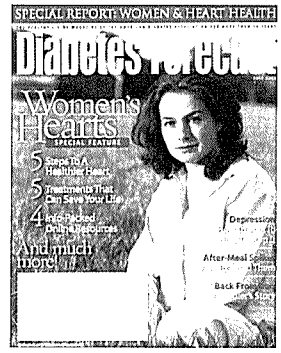
그러나 톰슨은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군복무를 할 동안 그는 냉장고나 의학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전쟁터에는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집에서의 전쟁

그러나 톰슨은 자기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어했고, 2002년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이 터졌다. 1년 후 미군들은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미 육군 하사관 마크 톰슨은 제 1형 당뇨가 이라크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군대에 설득시켰다.
– 라오리 메이어즈 씀

출처 : Diabetes Forecast



톰슨은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재 입대를 권고하는 직업 상담자였다.

"저는 군인들을 앞에 두고, 전쟁터로 나가는 진로에 대해 상담하였으나 저는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톰슨은 말했다. "그것은 옳은 일 같지 않았습니다."

2003년 봄, 톰슨의 부대, 제 1보병사단은 2004년 1월 이라크로 배치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톰슨은 후방부대로 전담되어 그의 부대의 기지인 독일로 파병됐다. "후방부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톰슨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닙니다. 후방부대에 있기 위해 내가 군대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톰슨은 혼자만의 연구를 했다.

그는 티크리트의 군기지에 연락해서 비상시를 대비해 5개월치의 인슐린과 주사기를 사용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NPH를 비축하길 요구했다. 그는 또한 캠핑용 냉장고를 사서 그것을 그의 군장비에 붙일 수 있도록 개조했다.

톰슨은 인슐린 펌프를 옷에 부착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씨 100도가 곧잘 넘는 날씨에서 인슐린을 화씨 87도나 그 미만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물에 담가두면 화학작용을 하는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재사용 가능한 프리오 주머니를 발견했다. 이것은 하루가 넘는 기간 동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 이 주머니나 펌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병원에서 인슐린을 제공받을 것이고 그는 펌프를 그가 가지고 다니던 주사기로 대체할 것이다.

톰슨의 노력은 좋은 성과를 낳았다. 톰슨의 부대의 마이클 브루매그 미육군중령은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톰슨은 나에게 그의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음식, 인슐린 및 비상시를 위한 대비책까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브루매그는 말했다.

톰슨은 조건부로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그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8개월 치의 인슐린과 여분의 카테터, 혈당측정기, 주사기를 가지고 다닐 것이며, 만약 그의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의 건강이 위험해지면 당장 독일로 돌아온다는 조건이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한 이틀간의 이동 후에, 톰슨은 자신의 부대의 여러 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온 나라를 돌아다녀야 했다.

"나는 언제나 여러 개의 음식 주머니들을 가지

까지의 다음 4주간을 하루에 10번씩 혈당 체크를 했으며 새로운 펌프를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그 많은 혈당체크와 비상대비 계획은 잘 유지되어서 톰슨은 이라크에서 근무할 동안 그의 A1C를 6.5%로 유지하였다.

집으로

고 다녔습니다. 영양갱, 초콜렛 바 등 식당에서 집어 올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넣어서 말입니다."

정말 평화스러울 때에 군인들은 방탄복 조끼만 착용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방탄복, 무기, 눈 보호장비, 헬멧, 탄약과 군수품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최소 30kg이상의 무게로 톰슨의 펌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2004년 4월 그의 펌프는 압력으로 인해 깨졌고 그것은 최악의 시간이었다. 톰슨과 그의 동료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음식의 정상적인 공급이 끊긴 관계로 미리 포장된 보존식품으로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한 음식들은 톰슨으로 하여금 탄수화물 비율의 계산을 어렵게 했으며 지속적인 인슐린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톰슨은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인슐린 펌프가 도착할 때 여름이 오고,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다. 6월에는 그 열기 때문에 전체 군인들의 완전 무장이 간편화 될 정도까지 이르렀다. 기온은 화씨 130도까지 올랐고, 톰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탕까지 녹을 정도였다.

"사막의 공기,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굽기 위해 나의 머리를 오븐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톰슨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잘 버티고 있었고 그의 주머니들도 그것을 도왔다. 그는 한번도 냉장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2월, 톰슨은 이라크에서 그의 각 부대 방문의 임무를 완수했다.

톰슨은 티크리트로의 여정, 펌프가 깨졌을 때 죽을 것 같던 그 느낌 등 그곳에서의 시간을 자주 떠올린다. 그는 또한 이라크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곳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그는 승리했다.